

# 十 그날은 떠나 간다

주님께 향한 마음으로 나는 간절히 기도했다

최양영 도마고 사제 탄생 200주년, 선종 16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시복시성인 기원하는 기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황무지같은 내 마음을  
움직여 깨닫게 해주심과

그날은 떠나 누워의 곁을 . . . 경운을 잊도록 시간과 희망은  
허락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무렵은 조 오한무렵의 찬란도움으로 새벽부터 서둘러  
고향같이 정겨운 우리지역 베타성으로 출발하여

오전 10시 20분 경에 그곳에 도착했다

성지 성당 문앞에는 누님과 몇몇 신자들이 한 눈에 띄었다

성당이 찬발작 찬발작 가까워지자 나는 성직으로 허가된 사랑치럼  
하늘이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성체조배를 했다

그때 마침 누님께서 '고해성사 받을 사람은 마당으로 나오세요' 라는  
안내를 받았다

나는 우울했던 마음을 한순간에 털어버리고 하늘처럼 맑은 내 부족함과  
삶에서 겪어온 슬픔과 심한 진리와 기쁨을 조심스럽게 고백했다  
고해성사의 은혜는 참으로 신비함을 느꼈다

조금만 해도 동충치 같이 무거웠던 죄를 용서 받았다는 기쁨<sup>뽀뽀</sup>에  
나는 신비한 경이<sup>경이</sup>를 감사한 마음으로 마당에 향하여 하면

천사<sup>천사</sup>에게는 볼수 없는 절대적인 순교자와

우리 후손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최양영 신부님의 선택된

그 마음을 본받자



오늘만큼은 부끄러움 없이 내몸과 마음을 온전히 봉헌했다  
그리고 피와 땀이 흠뻑 묻어있는 거룩한 향연에서  
예수의 절이하신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함께 하고  
모두가 명원하는 최양업 사제가 허름빨리 복자와 정신반면에  
웃음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구병이 교우촌 명예목 향제로 발길을 옮겼다  
이곳 명예목 교우촌에도 그리기도 향기를 뿜어내는 신앙선조  
순교자들의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었다  
그동안 사는 순교자들의 열정에 물이들어 순교자가 되어보고  
성인이 되어보는 시간들을 묵상하면서  
우리순례 가족들은 성당에가서 성체로배를 받고 성지 순례를  
마친후  
최양업 신부님의 고달픈 성목순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황송바람이 솔솔 불어오는 속리산 산자 맞은편에 있는 조촐한  
식당으로 들어갔다  
가서 맛있는 비빔밥으로 저녁주사를 했다 우리는 주님안에 한공통체  
같은 기쁨에 향류의 피로를 회복하고  
오늘 순례 일행은 무사히 마칠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양업 신부님의 수복사당이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자택 근처에 대한 희망·믿음 사랑점수<sup>의</sup> 부리가 내려지고  
'그대를 따라 갈라'를 외치면서 우리 일행은 평화인사를 나누면서  
집으로 돌아왔다